러시아의 팽창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
지정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강 정 일*

❖ 요 약 ❖

본 논문은 지정학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여 러시아의 팽창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에 관해 살펴보았다. 크림반도 합병에 관해 논의하기에 앞서 지정학의 의미와 유용성에 관해 살펴보고, 대륙국가를 대상으로 연구된 기존 지정학 연구들에 대해 고찰한 후 러시아의 지정학적 특징과 팽창원인에 관해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과거의 크림전쟁(1853~1856) 사례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크림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비교해 봄으로써 역사적 맥락에서 러시아의 팽창원인을 고찰하였다. 시대와 환경은 변해도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인식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동유럽 정책의 기본적 틀로써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동유럽을 향한 러시아의 팽창원인에 대해 살펴 본 논문은 현재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구이다.

핵심어: 러시아의 팽창정책,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사태, 지정학

Ⅰ. 서론

2013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anukovych)정권은 EU와의 경제협력과 지원에 관한 협상을 중단하며 親러시아 정책을 선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러시아는 서방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18일 크림합병에 대한 최종 승인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크림반도와 흑해함대 사령부가 위치한 세바스토폴시를 사실상 자국에 귀속시켰다. 1991년 발생한 걸프전쟁 이후, 탈냉전시대에서는 용인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낡은 시대의 산물인(Klaus Dingwerth and Philipp Pattberg 2006, 185~203) 영토를 기반으로 한 팽창정책이 되살아 난 것이다. 현재까지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관해 러시아와 서방국가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 한국지정학연구소 연구위원

들의 긴장과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후르시초프(Nikita Khrushchyov)에 의해 귀속된 크림반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임을 주장하며 사활적 국가이익으로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천명한 반면, 크림합병을 러시아의 단순한 협상카드라고 만 생각했던(Rossiskaya Gazeta, 2014/03/19) 서방은 러시아의 기습적인 합병에 대해 대처하지 못한 채 러시아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뒤늦게 노력하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해 많은 학자들과 미디어들은 러시아의 영토적 팽창을 비판하며 서방국가의 개입으로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강봉구 2014; 우평균 214; 신동혁 2014; 구자정 2014; Mearsheimer 2014; Allison 2015).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에 대해 현실주의적 인식,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팽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이해와 가치의 충돌,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지지 확보, NATO와의 군사적 관계 등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한 많은 논문들을 발표되었다(김성진 2016; 온대원 2015; 고상두 2015; 이우진 외 2015; Wolff 2015; Auer 2015). 하지만 러시아가 동유럽과 크림반도에 대해 바라보는 인식 즉,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내재적 인식들이 어떻게 팽창정책에 반영되고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분석들은 각각의 논문에서 조금씩 언급되어졌을뿐, 집중적으로 연구된 논문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라는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영토적 팽창을 시도한 과거의 크림전쟁(1853~1856)과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교하여 '영토합병'이라는 관점에서 러시아의 팽창정책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크림반도 합병 사건을 중심으로 러시아 팽창정책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본 논문은 러시아와 주변국과의 관계 또는 러시아의 국·내외적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의 관점을 벗어나 '지정학' 이론에 기초하여 본격적 원인을 분석해 볼 것이다. 즉,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을 '러시아의 팽창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정책 이면에서 언제나 내재되어 온 지정학이라는 변수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을 다시금 고찰해 보고자 한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영토적 문제로 귀결되고, 영토분쟁은 주로 역사적 맥락을 통해 과거의 인식과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을 활용한 본 논문은 러시아 팽창정책의 근원적 원인을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

는 러시아의 팽창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지정학의 의미와 유용성에 관해 논의하고, 대륙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정학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지정학 이론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지정학적 특징과 영토에 관한 인식들을 통하여, 과거 크림전쟁(1853~1856)의 사례와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크림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러시아의 행보를 비교해 봄으로써 역사적 맥락에서 러시아의 팽창원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유사한 상황들에 대해 교훈을 도출할 것이다.

Ⅱ. 지정학 이론의 의미와 유용성

1. 지정학 이론의 의미와 연안국가의 지정학

지정학은 자연환경의 공간과 정치조직체의 구조와 특징에 관한 이론으로서, 지구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국가의 힘에 대한 교리이며, 지리적 요인이 국가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이론이다(Russel H. Fifield and G. Etzel Pearcy 1994, 4~11). 인간 삶의 기반인 자연환경은 인간의 가치와 생활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적 관습, 제도, 주민의 건강과 성격, 군사적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인간의 역사와 생활에 기반이 되는 것으로 즉, 인간은 지리적 요소와 환경에 의해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과학문명이 발달한 현재에도, 지리적 공간의 지정학적 요소는 국제정치의 행위자인 국가의 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여러 지정학 이론가들 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신의 미국학자 스파이크만(Nicholas John Spykman 1893~1943)은 1942년에 발간한『국제정치에 있어 미국의 전략(America's Strategy in world Politics, 1942)』과 1944년『평화의 지리학(The Geography of peace)』를 통해 국가의 대외정책에서 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정학과 현실주의에 기초하여 국제관계를 바라보았다. 스파이크만은 매킨더(Halford J. Mackinder)가 주장한 하트랜드[1]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했지만 그는 매킨더의 하트랜드 이론이 주변지역(Crescent)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1) 하트랜드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로서 가로축은 동유럽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시베리아의 동측 경계선까지, 세로축은 북극해에서 남쪽으로는 남부 아시아의 사막지역을 포함한다.

비판하며 매킨더가 구분한 내주 또는 연변의 초승달지대(Inner or Marginal crescent)를 림랜드(Rimlamd)라고 명명하며 이 지역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켰다(Alexandros Petersen 2011, 27). 즉, 새로운 생산력과 교통의 중심지인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부 즉, 림랜드가 중요한 지정학적 지역임을 강조한 것이다.

스파이크만은 매킨더가 저평가한 '내주 또는 연변의 초승달지대(Inner or Marginal crescent)' 즉, 림랜드지역을 대규모 인구와 풍부한 자원, 내해(Interior sea lane)로의 활용성 등을 근거로 이 지역이 세계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지해야 할 열쇠와 같은 지역으로 지목하였다. 스파이크만이 중요시한 유라시아의 림랜드는 유럽 해안, 아라비아와 중동의 사막, 그리고 인도에서 중국 남부에 이르는 아시아의 몬순기후 지역 등 가장자리 땅을 포함한다(Brian W. Blouet 2005, 6). 스파이크만의 림랜드 이론과 매킨더의 심장이론 간에 가장 큰 차이점은 매킨더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대결논리를 중시한데 반해, 스파이크만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갈등보다 림랜드 세력과 하트랜드 세력 간의 갈등, 혹은 림랜드 세력과 해양세력간의 갈등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즉, 대륙국가가 림랜드를 장악한다면 해양국가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연안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고, 반대로 해양국가가 림랜드 지역을 장악한다면 대륙국가의 해양으로의 진출을 차단하면서 자신들이 대륙으로 침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스파이크만은 유라시아 심장지역이 아니라 주변지역을 장악함으로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인 림랜드를 통제하는 것은 대륙국가와 해양국가가 중첩되는 중간지대를 통제하는 것으로,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요충지를 선점하는 것이다. 이 같은 림랜드의 중요성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해양국가들과 대륙국가들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림랜드를 한 세력이 선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해양세력 및 대륙세력의 동맹이 혼재되어 나타나 경쟁하게 된다고 말한다(Alexandros Petersen 2011, 26). 스파이크만은 매킨더와는 다른 관점으로 림랜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충돌이 발생되는 림랜드의 통제가 세계 지배를 좌우한다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2)]

2) 림랜드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의 치열한 쟁탈의 무대였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인도와 대양의 지배자인 영국과 남부의 바다로 전진하던 러시아간의 '거대한 시합'이 있었고, 19세기 말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영국과 독일이, 1940년대 말에서 1980년대 말까지 미국과 소련이 수차례 충돌하였다. (필립 모로 드파르쥐 지음, 이대희·최연구 옮김 1997, 66)

2. 지정학의 유용성

국가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개발되어 국제관계를 해석하고 있다. 이중 지정학은 강대국들의 영향력과 패권문제를 역사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이론으로서(Alexander B. Murphy 2009, 629) 역사에 의한 현대적 의미를 도출해 내는 국제정치학과 역사학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는 지정학의 주된 관심영역인 영토분쟁이 주로 역사적 맥락을 통해 과거의 인식과 사건에 기반을 두고 이어져 오는 것이며, 이러한 흐름과 원인을 분석하는데 지정학이론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정학은 열강들 간의 역학관계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밝히는데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러시아의 팽창정책에 대한 원인을 지정학을 통해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대외정책의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팽창정책의 기조는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충돌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시각으로 설명될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실 초기 지정학 이론은 독일과 스웨덴, 그 이후에는 영국과 미국 등 주로 해양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지만 지정학 이론의 핵심주제는 항상 대륙국가의 팽창과 해양을 지배하려는 해양국가의 진출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상반된 이들 두 세력의 충돌은 불가피 한 것으로 당시 제기된 대부분의 지정학 이론들은 대륙국가 러시아와 해양국가 영국의 관계를 주된 주제로 다루었다.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등 광활한 국경을 기반으로 국력의 신장과 영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양으로 진출하려 했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국가들은 이러한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여 왔다. 과거로부터 러시아의 팽창정책은 해양국가들과의 숙명적인 충돌 속에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의 크림반도 병합문제 또한 지정학의 틀 속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역사적 분쟁들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인 러시아의 충돌에서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며, 해양으로의 진출을 끊임없이 모색했던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근원적인 동인을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치적 이념이나 통치체계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팽창정책이라는 대외정책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이는 고정된 지리적 환경과 그로 인해 형성된 러시아인들의 인식과 정체성이 외교 정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두 요소 간에는 상호의존성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러시아의 팽창정책은 러시아인들의 지리적 공간인식과 세계관이

정책으로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해양국가들과의 충돌은 필연적이 것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틀을 중심으로 충돌의 시기는 상이하나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했던 크림전쟁(1853~1856)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분석함으로써 러시아와 해양세력 간의 충돌을 살펴본다면 러시아가 왜 크림반도로 팽창하려는 했는지 그리고 그 정책적 바탕이 되는 러시아인들의 인식과 해양세력들의 정책적 근원(根源)이 무엇인지에 대해 쉽게 분석할 수 있다.

둘째, 러시아의 동유럽 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역사학적 접근 또는 민족갈등과 패권추구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조건과 인식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어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이 지리적 장벽과 거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특정한 지리적 공간은 여전히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정학적 특징은 한 국가의 영토를 다른 국가와 구분하는 동시에 문화영역과 문명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인식과 정체성이 대외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 요컨대 지정학적은 정책을 구상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근원적인 배경과 고려요소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Collin S. Gray 1996, 247~259).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문화를 가진 러시아의 지정학적 조건은 정치체제를 중앙집권적 형태로 이끌었지만, 자연적 장벽의 부재는 스텝지역의 유목민과 서유럽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영토적 침입을 허용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러시아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내재되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러시아 대외정책에 지속적이고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외적 위협인식은 러시아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동유럽지역을 장악하여 지정학적 방벽을 획득하는 노력을 경주하게 하였고, 러시아의 대외적 팽창과 대내적 결속을 자극하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가 되어 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특이하게도 근접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제국을 형성했다.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원거리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는 달리, 러시아는 국경 근처에 있는 인접 국가들을 복속시키기 위해 동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에드워드 사이드 1998, 57). 이 또한 대륙국가로서의 러시아적 성향과 외부의 침입에 노출되어 있는 러시아의 지리적 환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러시아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영토적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유럽과 아시

아로 팽창하였으며, 이는 러시아의 영토적 특성에서 파생되는 지정학적 도전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Igor Malashenko 1990, 46). 특히,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인 크림반도를 통제하는 것은 대륙과 해안으로의 진출로를 선점하는 것이었으며, 해양국가들이 대륙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안보적 위협을 줄 일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를 선점하는 것이었다.

Ⅲ. 러시아의 지정학적 특징과 팽창원인

러시아의 지리적 특성은 러시아인들의 삶의 형태, 통치스타일, 국가 운명 등에 영향을 미쳤다. 광활한 영토는 러시아인들을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원시적인 힘과 끈기'[3]를 가진 국민성을 형성시킨 반면, 자연방벽의 부재가 가져온 국경지역의 불안함은 러시아인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제국을 완성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바다로 향하는 팽창정책의 기반이 되었다(Morgenthau 1993, 145~147). 19세기의 역사가 세르게이 솔로비요프(Sergei Mikhailovich Solov′yov)가 그에 저서『러시아사(史)(Istoria Rossii s drevneishikh vremën)』에서 "자연은 서유럽 사람들에게 어머니와 같이 대했지만, 동유럽 사람들에게는 계모와 같이 행동했다."고 말했던 것처럼 가혹한 기후와 척박한 토양 또한 러시아인들의 거주 지역을 제한시켰다. 기후와 영토의 척박함은 러시아의 국민성과 역사에도 영향을 미쳐 집단적 성향과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력으로 반영되었고, 지속된 압제(Tranny)도 참아내는 내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넓은 평원 지대의 지형적 특징은 오랜 기간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민족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국가 형성을 제약하기도 하였다(Kaplan 2012, 155~159).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국가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유럽에 속한다"라는 표현은 정체성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고민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Tatiana Zakaurtseva 2007, 104). 러시아인들은 "러시아가 유럽 국가인가 아니면 아시아

3) 모겐소는 러시아인들의 국민성에 대해 여름 정원의 병사, 죄수와 부인의 일화, 러시아 입국 문제의 3가지 일화를 소개하면서 러시아인들의 인내와 지구력, 숙명적인 삶의 자세 등을 설명하고 있다(Hans J. Morgenthau 1993, 145~147).

국가인가? 또는 유라시안 국가인가?"에 대한 자문자답을 끊임없이 해왔으며, 이것은 결국 '러시아 정체성(Russian identity)'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4] 러시아는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다인종, 다민족이 거주하는 거대한 제국의 형태를 유지해 오면서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민족국가(nation-state)였던 적이 없으며 항상 제국(Empire, not Imperial State)[5]으로 존재해 왔다(강봉구 1999, 26~33). 러시아에 있어 혈통, 인종, 행정적 통제, 심지어는 종교에 있어서도 특별한 공통분모라 할 수 있는 러시아의 민족성을 형성해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끝없는 공간과 문화적, 정신적 다양성에 기인한 개방성을 중심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려 노력하였고, 오늘 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알렉산더 두긴 2000, 57~59). 지정학적 환경으로 인해 러시아는 특정한 인종 및 민족의 정체성보다는 러시아 제국 전체의 영토적 통합성을 강조해 왔다(Thomas F. Remington 1999, 10). 즉, 러시아는 유라시아 제국의 지속적인 확장만이 러시아 제국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인식아래 영토적 통합성이라는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지정학적 요소에 영향을 받은 러시아적 국제정치 인식구조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서유럽에 대한 열등의식과 매개한 민족에 대한 문명적 지배, 문화적 유산을 공여하는 종교와 문화의 전달자로서의 메시아사상,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무시가 그것이다(Kaplan 2012, 159~160). 이러한 인식으로 러시아는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러시아만의 독특한 민족주의 내세웠고 그것은 영토 확장과 제국주의적 성향, 그리고 공동체주의와 관계된 종교적 요소들로 나타났다. 바로 이러한 유라시아주의적 가치야 말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대륙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김우승 2006, 270). 유라시아적 가치는 광활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전통

4) 러시아의 유라시아 주의와 정체성 논쟁과 관련해서는 고재남, "러시아의 對유럽 정책", 홍완석 외, 『현대 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p. 503과 Natalie Gross, "Russia's Strategy-East or West?", *Jane's Intelligence Review*, (1992. 6), pp. 256~257; Alexander Rahr, "Atlanticists Versus Eurasisans in Russian Foreign Policy," *RFE/RL Research Report*, (1992 .5. 29), pp. 18~22 등을 참고할 것.

5) 제국의 일반적 의미는 군사력에 기초하여 식민지에서 초과이윤을 획득하고 정치·경제적 주권을 침탈하여 식민지 주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러시아 제국은 이러한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는 일반적인 '제국'의 의미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의 제국을 운영해 왔다. 다만 러시아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통제력과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을 고착시키고 확대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다.

적인 운명이자 사명이요, 정체성이었고 러시아 외교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였다.

Ⅳ. 림랜드를 향한 팽창: 크림전쟁과 크림반도 합병

1. 크림전쟁(1853~1856)

동유럽(Eastern Europe)은 서유럽을 기준으로 발트해에서 발칸 반도에 이르는 유럽의 동부 지역을 지칭한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동유럽은 지리적 개념을 넘어서 역사적, 정치적 관점에서 분류하기도 한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서유럽에 대비되는 공산주의와 계획경제체제를 가졌던 국가군(群)을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동유럽이란 단순히 유럽의 동쪽지역이라는 지리적인 관점이나 정치적인 의미에서 구분되어지는 지역이 아니라, 역사·정치적 관점에서 파생된 지역의 명칭이라 할 수 있다. 동유럽은 지역적 범위도 일정하지 않고, 민족·문화·종교적 측면에서도 이질성이 강한 지역이다.

동유럽은 제국의 건설에 있어 반드시 귀속시켜야 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매킨더는 1904년 논문에서는 동유럽을 주로 '내주 또는 연변의 초승달지대(Inner or Marginal crescent)'로 분류하였다. 이후 매킨더는 1919년에 발표한 저서에서 과거 '추축지대'에 포함되지 않았던 동유럽과 극동지역의 일부를 하트랜드 지역으로 확대시켜 포함하였다(Michael P. Gerace 1991, 350). 스파이크만 또한 동유럽을 림랜드(rimland)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동유럽은 하트랜드인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점으로서, 발트해, 도나우강 중류 및 하류지역, 흑해, 아르메니아 등을 포함한 동부 및 중부유럽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매킨더는 동유럽을 포함한 하트랜드를 평가하며, 동유럽의 지배가 세계제국을 이루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유럽은 풍부한 식량자원과 적당한 기후로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적당하여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지역이자, 비옥한 토지와 천연자원을 보유하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James Trapier Lowe 1981, 587). 이러한 이점을 지닌 동유럽은 지리적으로 서부 유럽, 서남아시아,

러시아 연방 등과 인접하고 있어 주변강대국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아왔으며,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갈등과 대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었다. 특히, 지정학적 요충지인 동유럽과 발칸 및 크림반도지역은 잠재적으로 해양세력 및 육지세력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지역으로서, 대륙국가인 러시아가 세력을 확대하여 추축지대와 초승달지대 즉, 동·서유럽의 통합을 추진한다면 패권국이자 해양국가인 영국에게는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역이었다. 동유럽은 세계적인 중요성을 지닌 전략적 위치에 있기에 이 지역을 장악하는 것은 세계지배를 용이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를 막을 수도 있는 핵심적인 지역으로 평가 받았다.

동유럽은 인종적, 민족적인 측면에서도 복잡한 관계를 가진 지역이다. 동유럽 지역의 주민은 대다수가 슬라브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非슬라브족도 널리 분포되어 있어 주민구성이 아주 복잡하며, 언어구성 또한 혼재되어 있다. 매킨더는 동유럽에서 벌어지는 모든 충돌을 슬라브족에 대한 非슬라브족 특히, 게르만족의 지배권 주장에 있다고 평가하였으며(Mackinder 1996, 90) 사뮤엘 헌팅턴(Samuel Humntington)은 동유럽과 발칸지역의 분쟁에 대해 전형적인 문명 간의 전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Samuel Huntington 1996; 사무엘 헌팅턴 1997, 363~371). 그러나 동유럽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지점으로서 유럽의 화약고가 되어 왔던 것은 무엇보다도 동유럽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크림전쟁은 동유럽의 지정학적 요충지인 흑해의 크림반도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서,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있던 러시아 제국과 발칸반도와 흑해를 영향력 아래 두고 있던 오스만제국 간의 전쟁이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두 제국의 대결을 넘어서 영국과 프랑스까지 개입된 대규모의 전쟁으로, 교전의 범위가 유럽을 포함하여 극동까지 확대되어 나타난 그야말로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 즉,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6]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크림전쟁은 '성직자들의 싸움(quarrel of monks)'인 성지관할 문제와 종교의식을 둘러싼 분규 등의 근인(近因: immediate cause)에 의해 촉발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지만(Albrecht-Carrié 1967, 85) 그 바탕에는 오스만제국의 약화와 대륙국가 러시아의 팽창정책을 저지하

6)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100여 년에 걸쳐 진행된 영국과 러시아의 세력 다툼과 첩보전을 체스에 비유하여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이라고 부른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일원이었던 아서 코놀리가 1840년에 헨리 로린슨 소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려 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봉쇄정책이라는 근본적인 원인(遠因: remote cause)이 내재되어 있었다.[7]

러시아의 전통적인 팽창정책은 흑해 방면으로의 남하정책과 유럽 방면으로의 진출, 그리고 시베리아 방면으로의 동진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트르 대제가 서구의 문물을 수용함으로써 근대국가로서의 기반을 확립한 이후 러시아는 인접 국가인 스웨덴을 굴복시켜 발트해로 향하는 출구를 확보하였고, 17세기 중엽에는 시베리아를 넘어서는 오호츠크해(Okhotsk Sea)에 도달하였다. 이후 러시아는 18세기 초에 캄차카 반도에 도달하였으며, 예카테리나 2세 시기에는 알라스카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카테리나 2세의 주된 관심은 흑해로의 진출이었다. 러시아가 하트랜드에서 유럽 방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천연의 출구는 콘스탄티노플 해협을 통과하는 해로(海路)였다(Mackinder 1996, 96). 흑해는 15세기 말 이래로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나 1774년 러시아와 오스만제국과의 전쟁의 결과로 쿠츄크 카이나르지(Kuchuk Kainardji)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가 흑해 연안 일대와 크림반도 일부를 획득함으로써, 흑해의 자유 항해권과 보스포러스 및 다르다넬스 해협의 통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8] 러시아는 흑해와 그 남쪽 출구를 장악함으로써 다르다넬스 해협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였고, 이는 필연적으로 러시아에 대항해 서유럽 국가들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흑해와 발칸방향으로 세력을 확장시키던 러시아에 대해 영국을 위시한 유럽열강들은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Albrecht-Carrié 1967, 86).[9]

그러나 대륙국가 러시아의 팽창과 이를 저지하기를 원했던 해양국가 간의 충돌은 1850년대에 들어서며 영토문제가 아닌 종교문제로 포장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

---

7) 전쟁의 원인과 근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Robert B. Strassler ed. *The Landmark Thucydides* (New York: Free Press, 1966), pp. 16~17(1.23~24);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p. 12.

8) 러시아의 팽창을 우려한 영국은 1809년 어떤 국가의 군함들도 다르다넬스 해협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조약에 삽입시켰으나 1833년 오스만제국과 러시아가 웅키아르 스켈레시(Unkiar Skelessi)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의 전함만은 다르다넬스 해협의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강성학 1999, 46~47).

9) 당시 흑해를 통한 러시아의 무역은 괄목할 정도로 증가하여 흑해의 항구들로부터 러시아는 곡물을 수출하고 이에 상당하는 수공업품을 대부분 영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다. 무역항으로서 흑해의 중요성은 증가되고 있었다.

다. 당시 오스만제국 내 그리스 정교의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이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성지관할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사실 프랑스의 관여는 단순한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오스만제국 내에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견제라는 정치적 요인이 더 큰 것이었다. 프랑스의 무력 과시와 공격적인 외교에 결국 오스만 제국의 압둘마지드 1세(Abdülmecid I)는 1852년 12월 프랑스의 성지관할권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락하고, 로마 카톨릭(Roman Catholic Church)과 새 조약에 조인하게 되었다. 이에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Nicholas I)는 흑해주변의 경계를 강화하면서, 기득권 회복과 새로운 조약을 체결을 위해 1853년 2월 멘시코프(A. S. Menshikov)를 특사로 콘스탄티노플에 파견하였다. 러시아는 위압적인 군출신 멘시코프를 내세워 오스만제국을 압박하였지만 오스만 정부는 프랑스와 영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러시아를 견제하였다. 사실 러시아는 영국만 동의한다면,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 오스만 제국을 병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Karl Marx 1979, 5). 하지만 영국은 러시아가 지정학적 요충지인 오스만제국을 점령할 경우, 발칸지역의 패권이 러시아에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당시 영국은 오스만제국과의 교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켜 왔기 때문에 오스만제국의 현상유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다(Mackinder 1996, 97). 러시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오스만 제국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5월 17일 멘시코프는 외교단절을 통보하였으며 그해 7월 러시아군은 오스만 제국 지배권 하에 있던 다뉴브 공국인 몰다비아(Moldavia)와 왈라키아(Wallachia)를 점령하였다(Albrecht-Carrié 1967, 88). 러시아가 두 지역을 점거하자, 영국은 러시아의 팽창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다르다넬스(Dardanelles) 해협으로 함대를 파견하였고, 프랑스가 파견한 함대와 연합하여 러시아와 대치하게 되었다. 영국의 지원을 받은 오스만 정부는 또한 1853년 10월 23일 정식적으로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 하였다. 결국, 오스만제국이 다뉴브 강가로 군대를 진군시킴으로써 나폴레옹 전쟁이후 강대국들의 첫 전쟁인 크림전쟁은 시작된다.

영국과 프랑스의 화력은 러시아군을 압도하였다. 러시아는 보급품의 지원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전을 치러야 했고, 1855년 1월에는 사르디니아가 1만 명의 병력을 크림반도에 파견하여 러시아를 더욱 압박함으로써 전장에서의 패색이 짙어갔다. 더욱이 1855년 3월 2일, 니콜라이 1세가 전쟁을 수습하지 못한 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서 눈을 감고, 알렉산드르 2세가 제위를 계승함으로써 러시아는 더욱 흔들리게 되었다. 연합군은 아조프해 입구의 케르치까지 함락시키고 9월 9일 세바스토폴이 점령당하면서 크림전쟁은 연합국의 승리로 굳어져 갔다. 이후 파리 강화회의가 열려 크림전쟁의 전후처리에 들어갔다. 러시아는 다뉴브 북부 하구와 프루트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빼앗김으로써 이 지역은 몰다비아에 흡수되었고, 흑해에 대한 영향력도 상실하였다. 러시아는 자국의의 내해와도 같았던 흑해의 중립화를 인정함으로써, 흑해에 함대를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잃었으며, 보블전쟁 이전까지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James C. Bradford, ed. 2006, 347~349; 피터 홉커크, 정영목 옮김 2008, 347~349). 또한 오스만 제국 내 정교도들에 대한 보호권 주장도 철회 당했으며, 영국이 아랜드를 점령하여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안보상 취약성도 증대되었다.

크림전쟁은 해양국가 영국이 러시아의 팽창에 대한 저지를 목적으로 치룬 예방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표트르 대제 이후 팽창하던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 참전하였고 대륙국가 러시아의 해양진출을 완전히 봉쇄하지는 못 하였으나, 러시아를 발칸에서 저지함으로써 동부유럽에서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었다. 이로써 유럽 내 다시금 세력균형이 유지되었고, 해양국가 영국은 해외진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2.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반도 합병의 지정학적 의미

1) 크림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위치한 크림 반도는 흑해지역을 중심으로 수세기 동안 동서 강대국들이 충돌해온 림랜드 지역이다. 크림반도는 훈족, 몽골족의 침략을 받은데 이어 제정러시아와 오스만제국이 번갈아 가며 지배한 지정학적 요충지로 평가되어 왔다(유형철 외 2015, 43). 이후 소비에트 연방 출범 당시 레닌 또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 “우크라이나 없는 소비에트 연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를 상실한다면 우리는 머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바 있다(Alexander J, Motyl 1993, 1). 2차 세계대전 시에도 히틀러가 우크라이나의 유전과 식량을 목표로 침공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유럽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요충지인 림랜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크림반도는 동유럽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관문이 될 수 있고 특히, 구소련 붕괴이후에는 서방과 러시아가 반드시 확보하고자 하는 안보적 요충지로, 서방은 러시아를 봉쇄하여 저지할 수 있는 요충지로서 러시아는 해양 진출의 관문이자 흑해와 발칸방향으로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교두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크림반도 내에는 부동항인 세바스토폴(Sevastopol)항은 러시아 흑해함대가 모항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지중해 내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바스토폴은 1783년 크림칸국을 합병한 예카테리나 2세에 의해 러시아의 군항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지중해 및 대서양으로 러시아 해군을 진출시킬 수 있는 출구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체계가 붕괴된 이후에도 러시아는 2042년까지 세바스토폴 해군기지에 흑해함대를 주둔시킬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와 합의하는 등 역사적으로 증명된 지정학적 요충지에 대한 통제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크림반도 내륙에 위치한 카차(kacha), 심페로폴(simferopol) 그바르데이스카야(Gvardeyskaya) 지역에는 러시아의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다. 크림반도 내 공군기지들 또한 언제든지 전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활용가능하며, 광범위한 영토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러시아가 세바스토폴 흑해함대와 공군기지들을 유지하지 못 할 경우 러시아는 북해 바렌츠 해로부터 남쪽 국경까지 지중해 및 대서양으로 진출 할 수 있는 모든 해로가 차단되며, 공군기지의 부재는 적시적인 전력의 투입을 제한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같이 많은 제약들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하였고, 해양국가들은 러시아의 팽창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19세기 크림전쟁 시에는 영국이,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TO국가들이 러시아의 남하를 지속적으로 저지하며, 러시아의 팽창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다른 시각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가치는 민족구성을 통해서도 분석될 수 있다. 지정학에서는 영토를 중심으로 국가 간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와 정체성이 대외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지정학은

현재 국제정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구성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지정학적 특성인 정체성이 한 국가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내 민족 구성비는 우크라이나인 77.8%, 러시아계 17.3%, 타타르인 등 소수민족 4.9%로 이루어져 있다. 우크라이나는 키예프에 위치한 드네프르(Dnieper)강을 경계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폴란드와 인접한 서부는 親서방적인 성향이 짙은 반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동부는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온 관계로 러시아계 주민들의 이주가 용이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러시아인들이 차지하게 되어 親러적 성향을 띄게 되었다. 종교 또한 러시아정교가 주류를 형성하는 등 러시아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부지역 중에서도 크림반도는 인구 200만 명 중 러시아인의 비율이 56%를 상회하여, 우크라이나계 24%, 타타르계 12%의 소수민족을 앞도하고 있다. 이러한 크림반도의 민족구성은 러시아가 '자국민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크림반도를 병합할 수 있었던 표면적인 이유로 작용하였다.

러시아 입장에서 크림반도를 포함한 동부는 서방국가들의 안보적 위협에 대해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활적 이익의 하나인 것이다. 냉전붕괴이후 러시아 안보의 중요한 완충지대였던 동유럽국가들이 NATO에 가입하였고,[10] 2017년 6월 5일에는 몬테네그로가 29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2019년 2월 6일에는 북마케도니아 마저 NATO와 가입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11] 이 같은 변화는 냉전 시 내륙 깊숙이 위치하여 안전하다고 평가되던 모스크바와 NATO 가입국인 발틱 3국간의 거리를 불과 600km 이내로 단축시켰으며, 유럽지역에 연하는 러시아의 국경 또한 서방에 크게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NATO의 동진은 유럽에 새로운 분단을 조성하는 것이며 자국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더욱이 2009년 이후 러시아를 제외한 동유럽권으로의 확장을 완성한 NATO에 대해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각심을

10) NATO는 1999년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가입시킨데 이어 2004년 4월 2일에는 발틱 3국을 포함한 동구권 7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이 가입하였으며, 2009년에는 알바니아, 크로아티아가 2017년에는 몬테네그로가 가입함으로써 1947년 12개국으로 출범하여 이후 가장 큰 규모인 29개국의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http://www.nato.int/cps/en/natohq/nato_countries.htm (검색일: '19년 2월 7일).

11)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49212.htm?selectedLocale=en (검색일: '19년 1월 29일).

들어내고 있다. 러시아는 서유럽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던 구소련 공화국들과 동유럽을 상실했기 때문에 극동 방면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와 유럽으로부터 지리적으로 위축.격리되는 동시에 외부에 대한 보안성은 약화되었다. 군사적으로도 발틱해, 흑해, 아조프해, 카스피해 등에 있는 해군기지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전반적인 국가안보의 취약성은 일시에 증가하였으며, 그 추세도 계속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러시아는 전통적인 완충지대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40년간 서유럽 국가들보다 군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지리적 이점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우크라이나까지 NATO와 EU에 가입하여 NATO 함대를 받아들이고 러시아 선박의 흑해 항구 입항을 방해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 저지는 일종의 레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팀 마샬 지음. 김미선 옮김 2017, 137~138). 더욱이 우크라이나의 이탈은 그루지야와 몰도바의 NATO 가입을 촉진시켜 연쇄적인 악재들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러시아가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는 촉진제로서 작용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러시아는 NATO국가들에게 봉쇄되는 안보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에게 있어 우크라이나는 민족적, 종교적 동질감과 정체성을 공유지역으로 서방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동유럽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다. 현재 러시아는 크림합병을 통해 동유럽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ossiskaya Gazeta, 2014/03/20).

2) 군사적 합병과정과 서구의 대응

크림전쟁시 군사적 조치만으로 접근했던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합병과정에서는 과거와 달리 국제적 지지를 획득하고 서구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親러 반군의 활동을 부각시키며 자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은폐하였다. 또한 한편으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정치·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혼란을 이용하여 親러 세력들을 결집시킨 후, 자국의 크림반도 합병이 민주주의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진 정당적인 병합임을 주장하였다.[12] 또한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의

12) 국제사회는 이러한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4세대 전쟁의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을 제출하고, 피난민에 대한 의료지원, 구호품 제공, 난민지원 자금 배정 등 인도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NATO를 포함한 서방국가들의 개입을 차단하여 크림반도의 합병을 기정사실화시켜 나갔다(이우진 외 2015, 37~41).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지 5개월여 만에 대규모의 교전을 회피하면서 크림반도를 자국의 영토로 병합하였고, 병합의 명분과 국제사회의 제한적 지지를 획득하여 NATO를 포함한 해양국가들의 개입 또한 현재까지는 차단하고 있다. 그 결과 크림반도 합병 이후 크림반도 주민 다수는 러시아 귀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GfK Ukraine이 크림지역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82% 주민이 적극지지, 11%는 지지, 4%는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 크림 주민 다수는 러시아 귀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3]

이와 같이 "러시아의 크림 병합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14](한국일보, 2015/03/17)라는 크림반도 내 우호적인 인식에 힘입어,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2일에 푸틴 대통령 서명으로 크림 공화국 및 세바스토폴시를 남부군관구에 통합하였고, 12월부터는 크림 반도 및 흑해 방어를 위해 합동군 96개 부대를 배치하였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15년 12월 31일, 국가안보전략 문서를 통해 미국과 NATO를 러시아의 위협요인으로 공식지목하며 서방과의 갈등을 고조시켰다.

이에 반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對러시아 정책기조는 단호하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비합법적인 행동이며, 유럽 내 안보 질서를 무너뜨리는 용인할 수 없는 사례로서, 크림반도를 반환하지 않는 한 외교, 군사, 경제제재를 포함하는 對러시아 정책기조는 변화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NATO는 동유럽 내 美 MD체계를 최초로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러시아 접경지역

13) https://www.fit4russland.com/widerstand/839-umfrage-der-gfk-ukraine-93-der-krim-einwohner-begr-sst-beitritt-zu-russland (검색일: '19년 2월 20일) 동 조사는 15년 1월 16일부터 22일간 크림지역의 18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오차 범위는 3.5%임.

14)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공화국 총리는 BBC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크림 병합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며 "크림은 역사적인 고향 러시아로 돌아간 것이며 다시는 우크라이나로 갈 일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크림에서 일어난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은 언론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있다"며 서방언론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국일보』, "크림반도, 러시아 귀속 1년, 경제난 있어도 후회는 없다"(2015. 3. 17.).

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발틱 3국과 폴란드에 4개 대대 규모, 4,000여명의 지상군을 증강 배치 중에 있다. 러시아 또한 NATO의 전력 증강에 대응하여 16년 8월 크림반도 지역에 전략 핵폭격기(Tu-22M3)를 배치하였고, 동년 11월에는 폴란드 북부에 인접한 칼린그라드 지역에 전술 핵미사일(이스칸데르-M)를 배치하며 대응하였다. 19년에도 NATO의 군사훈련과 舊 소련권 국가들의 동참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여 군사력 증강과 대규모 군사훈련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처럼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을 통해 구소련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해양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NATO를 중심으로 한 해양국가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서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러시아는 동유럽을 포함한 크림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념을 바탕으로 한 냉전이 아닌 지정학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 '新냉전'의 기류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러시아의 팽창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본 논문은 지정학을 중심으로 지정학의 의미와 유용성, 러시아의 지정학적 특징과 인식 등을 분석하고, 크림전쟁과 크림반도 합병 사례를 통해 팽창원인에 대해 다시금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러시아의 팽창정책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련의 부산물이 아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공간과 특성에 기반을 둔 러시아인들의 역사적 유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혹한 기후와 척박한 토양은 러시아인들의 거주 지역을 제한시켰고, 자연적 장벽이 되어 주지 못했던 넓은 평원 또한 훈족을 비롯한 유목민족들의 침입에 대한 공포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이 같은 국경지역의 불안함은 러시아인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제국을 완성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바다로 향했던 팽창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즉, 유라시아 제국의 지속적인 확장만이 러시아 제국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고, 국경의 안정과 영토적 통합성이 러시아인들에게는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으로 인식되어 러시아 차르들의 역사적 사명이 된 것이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통치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팽창정책을 기반으로 한 외교정책의 근본

은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고정된 지리와 외교 정책간의 상호의존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라시아 지역에 걸쳐 넓게 형성되어 있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이 러시아가 지속적인 팽창정책을 추구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적용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크림반도 합병 또한 국경의 안정성과 해양으로의 진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통해 제국을 꿈꾸는 러시아의 팽창정책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사명이자 명령이라 하겠다.

둘째, 러시아의 팽창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은 범세계적인 해양국가와 대륙국가 간의 충돌로서 설명될 수 있다. 지구의 지리적 구조와 문명적 유형에 기반은 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은 역사적으로 순환되어 나타났으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로 인해 범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불가피한 충돌은 과거 유럽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에서도 발생해온 것으로, 잠재된 충돌의 원인들이 동유럽의 림랜드인 크림반도에서 다시금 나타난 것이다.

셋째, 지정학적 관점에서 대륙국가의 팽창이유 중 가장 강력한 요인은 영토 획득과 바다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망일 것이다. 이 욕망은 강대국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며, 대륙의 폐쇄적인 영역을 벗어나 자유롭고 개방적인 해양으로의 진출은 국가성장의 활로이자 도전이었다. 비록 약소국가들은 해안에서 멈출지 모르지만 강력한 국력을 지닌 강대국들은 바다를 건너 반대편 해안까지 진출하려 하였고, 강대국들의 이러한 성향은 차단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대륙과 해양을 결합하는 것이고, 대륙과 해양의 광대한 공간들을 확보하고 이를 장기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해외영토는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특히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인 경우에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며, 이런 연유에서 크림반도의 합병은 러시아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사활적 이익이 된 것이다. 특히나 생활권(Lebensraum)을 주장한 하우스호퍼의 논리에 기초해서 러시아를 바라본다면 해양진출에 대한 욕구는 어떤 권력정치의 동인보다 강력한 것으로, NATO의 확대와 동유럽에서의 영향력 축소라는 국제적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러시아에 있어 크림반도는 자국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유럽으로의 진출, 더 나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로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활적 이익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서양의 입구인 발트해에서는 발틱 3국을 비롯하여 북유럽 지역 국가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왔으며, 지중해와 흑해의 관문인 크림반도에서는 해양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충돌

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크림반도에 대한 팽창과정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는 과거 크림전쟁 시기와 다르게 합병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군사적 개입을 은폐하며, 평화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해양국가들의 개입 명분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대규모 교전 없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종국에는 크림반도를 합병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는 크림반도의 병합은 아직 봉합되지 않은 상처처럼 언제 곪아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역사적 사실이 말해주듯이, 만약 러시아가 팽창정책을 고수하여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국가들의 연합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가시화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제2의 크림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향후 러시아에 대한 해양국가들의 연합과 제재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행보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1〉 크림전쟁(1853~1856)과 크림반도 합병(2014)의 비교

구 분		크림전쟁(1853~1856)	크림반도 합병(2014)
충돌 원인	근인(近因)	• 종교(성지관할)문제	• 자국민 보호 • 크림 반도 내 자발적 병합 수용
	원인(遠因)	• 해양으로의 진출로 확보 • 지정학적 가치	• NATO 및 서방견제 • 지역내 군사전진기지 확보 • 지정학적 가치
대상국		• 영국과 프랑스	• 우크라이나 정부 및 NATO
결 과		• 흑해에 대한 영향력 상실	• 크림반도 병합 • 서방의 개입 차단

넷째,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얻은 지정학적 교훈을 안보환경이 유사한 우리나라에게 적용시켜 볼 수 있다. 크림반도와 한반도는 스파이크만이 주목한 '림랜드(Rimland)지역'으로 대규모 인구와 풍부한 자원, 내해(Interior sea lane)로의 활용성 등을 근거로 이 지역이 세계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지해야 할 열쇠와 같은 지역이다.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해양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며, 해상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예로부터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연결하는 충돌지점이자 해양

국가와 대륙국가 모두가 선점하여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하기를 원한다. 지정학적 요인들로 인해 크림반도는 물론 한반도 또한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항상 공간적 제약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유라시아의 림랜드(Rimland)로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양쪽을 분리시킬 수도 있고, 매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교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같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는 대륙국가 중국과 해양국가 일본의 사이에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였고 더구나 19세기와 20세기에는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의 장으로 변모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북한이 붕괴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중국은 반드시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또한 소련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 한반도에 영향력 확대하려 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해양국가인 미국과 일본이 개입하면 크림반도 합병의 경우보다 더 큰 국제적 분쟁과 충돌이 야기될 수 도 있다. 림랜드라는 지정학적 숙명을 지울 수 없는 이상 우리는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양측의 국제적 지지를 확보한 가운데, 완충지대 역할을 지속하며 내적으로 더욱더 국력을 키워 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대와 환경은 변해도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인식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동유럽 그리고 국경을 접한 모든 림랜드 국가에 대한 정책적 기본 틀로써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동유럽을 향한 러시아의 팽창원인에 대해 살펴 본 논문은 현재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 현재의 동유럽의 상황과 같은 림랜드 지역인 한반도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구가 되리라 생각된다.

투 고 일: 2019.04.28.
심사완료일: 2019.05.13.
게 재 일: 2019.05.30.

참고문헌

강봉구. 1998.『현대러시아 대외정책의 이해: 대외정책노선 형성과정. 1992~1998』.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강성학. 1999.『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 러일전쟁의 외교와 군사전략』.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고재남. 2005. "러시아의 對유럽 정책." 홍완석 외.『현대 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 서울: 한울아카데미.

알렉산더 두긴. 이원복 편역. 2000.『러시아의 지정학적 미래』. 서울: 화랑대연구소.

이우진, 여인한, 정성우, 조상현. 2015.『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 군사적 개입의 정책·전략적 특징을 중심으로』. 대전: 육군군사연구소.

에드워드 사이드. 김성곤·정정호 역. 1998.『문화와 제국주의』. 서울: 도서출판 窓.

피터 홉커스 지음. 정영목 옮김. 2008.『그레이트 게임: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숨겨진 전쟁』. 파주: 사계절.

필립 모로 드파르쥐 지음. 이대희·최연구 譯. 1997.『지정학 입물: 공간과 권력의 정치학』. 서울: 새물결.

Albrecht-Carrié. 1967. *Diplomatic History of Europe Since The Congress of Vienna.* New York: Harper & Row.

Alexander J, Motyl. 2011. *Dilemmas of Indefendence: Ukraine After Totalitarianism.* New York: A Courncil on Foreign Relations Book.

Alexandros Petersen. 2011. *The World Island: Eurasian Geopolitics and the Fate of West.* California: ABC-CLIO, LLC.

Alexander B. Murphy. 2004. "Is there a Politics to Geopolitic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28, No. 5.

Blouet, Brian W. 2005. *Global Geostrategy: Mackinder and the Defense of West.* New York: Frank Cass.

Hans J. Morgenthau. 1993.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Brief Edition. New York: McGraw-Hill Co.

Huntington, Samuel P. 1996.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Touchstone.

Kaplan, Robert D. 2012. *The Revenge of Geography: What the Map Tells Us About Coming Conflicts and the Battle Against Fate*. New York: Random House Digital, Inc.

Nicholas N. J. Spykman. 1944. *The Geography of Peace*. New York: Harcourt, Brace.

Russel H. Fifield and G. Etzel Pearcy. 1994. *Geopolitics in Priciple and Practice*. Boston: Ginnand Company.

Tatiana Zakaurtseva. 2007. "The Current Foreign Policy of Russia," in Akihito Iwashita(ed.), *Eager Eyes Fixed on Eurasia-Russia and Its Neighbors in Crisis*. Hokkaido: Slavic Research Center.

〈논문〉

강봉구. 2014. "신냉전인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종언인가?," 「동유럽연구」. 제38권 2호.

고상두. 201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개입요인에 관한 내용분석," 「국방연구」. 제58권 4호.

구자정. 2014.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우크라이나 사태의 이해," 「내일을 여는 역사」.

김성진. 201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정책과 유라시아주의," 「중소연구」. 39권 4호.

김우승. 2006. "러시아의 새로운 정체성 모색: 세계화인가 유라시아주의인가," 「담론201. Discourse 201.」. Vol. 9. No. 3.

신동혁. 2014. "러시아, 크림반도 신속 합병 우크라이나 사태 앞날은?," 「통일한국」.평화문제연구소..

온대원. 2015.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의 신안보질서," 「EU연구」. 제40호.

우평균. 2014. "유라시아 분쟁에서의 러시아의 개입: 조지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정치연구」. 제17집, 2호.

Alexander Rahr. 1992. "Atlanticists Versus Eurasisans in Russian Foreign Policy," *RFE/RL Research Report*. 5. 29.

Andrew T. Wolff. 2015. "The Future of NATO Enlargement after the Ukraine Crisis," *International Affairs*. Vol. 91, September.

Colin. 1996. "A Debate of Geopolitics: The Continued Primacy of Geography,"

Orbis. Vol. 40, No. 2.

Igor Malashenko. 1990. "Russia: The Earth's Heartland," *International Affairs*. July.

John. J. Mearsheimer 2104.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 The Liberal Delusions That Provoked Putin" *Foreign Affairs*. Vol. 77, Sep/Oct.

Halford J. Mackinder. 1904.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23, No. 4. Apr.

Karl Marx. 1979. "British Politics. Disraeli. The Refugees-Mazzini in London -Turkey," *The Collected Works of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Vol. 12.

Roy Allison. 2015. "Russian 'Deniable' Intervention in Ukraine: How and Why Russia Broke the Rules," *International Affairs*, Vol. 90, November.

Stefan Auer. 2015. "Carl Schmitt in the Kremlin: The Ukraine Crisis and the Return of Geopolitics," *International Affairs*, Vol. 91, September.

〈신문〉

『한국일보』, 2015. 3. 17.

Rossiskaya Gazeta, 2014. 3. 19.

Rossiskaya Gazeta, 2014. 3. 20.

〈인터넷 지료〉

http://www.nato.int/cps/en/natohq/nato_countries.htm (검색일: '19년 2월 7일).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49212.htm?selectedLocale=en (검색일: '19년 1월 29일).

https://www.fit4russland.com/widerstand/839-umfrage-der-gfk-ukraine-93-der-krim-einwohner-begr-sst-beitritt-zu-russland (검색일: '19년 2월 20일).

Russian Expansion Policy and Causes of Crisis in Ukraine: Focusing on Geopolitical Theory

Jung-Il Kang

This thesis examines Russia's expansion policies and the causes of the Ukrainian crisis based on a geopolitical perspective. Prior to discussing the Crimean Peninsula merger,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usefulness of geopolitics, and existing studies on continental countries, and examines the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and the causes of the Russian expansion. In conclusion, this paper analyzes Russia's expansion in the historical context by comparing the geopolitical value of the Crimean peninsula through the case of the Crimean War (1853-1856) and the current situation in Ukraine. The geological perception of Russia has been persistent throughout its history, and this perception is still used as the basic framework for its policies toward Eastern Europe including Ukraine. This paper will provide valuable reflections on the current Russian foreign policies as it focuses on the reason for Russian Expansion on Eastern Europe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Keywords: Russian Expansion Policy, Crimea Peninsula, Ukraine Crisis, Geopolitical Theory